



# 변화의 물결, 중국의 새바람

- 중국 대련의 세계무역센터 빌딩 신축현장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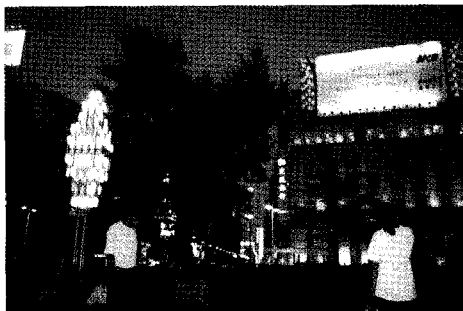
다큐멘터리 작가  
홍 하 상

무서운 속도로 개발되고 있는 대련시에 신축중인 55층 '세계무역센터'의 임시화장실은 비록 공사현장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모양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고 공사현장에서 퍼낸 지하수를 손살같이 흘려보내는 역할까지 소화하고 있었다.

지난 여름 대련(大連)에서 열흘을 보냈습니다. 대련은 인천항에서 볼 때 11시 방향에 있는 중국 요녕성의 도시입니다. 요녕성은 우리 나라의 경기도와 또한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 460만 명의 대련시는 중국 1,051개 개방 도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손꼽힙니다.

## '대련을 닮아라'

강택민 주석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련은 요녕성에서는 인구 760만의 심양시 다음가는 도시이지만,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에 가장 성공한 도시로 손꼽힙니다. 시는 올 여름과 가을에 대련에서 청도, 항주, 소주, 상해에 이르는 중국 해안도시들을 돌아다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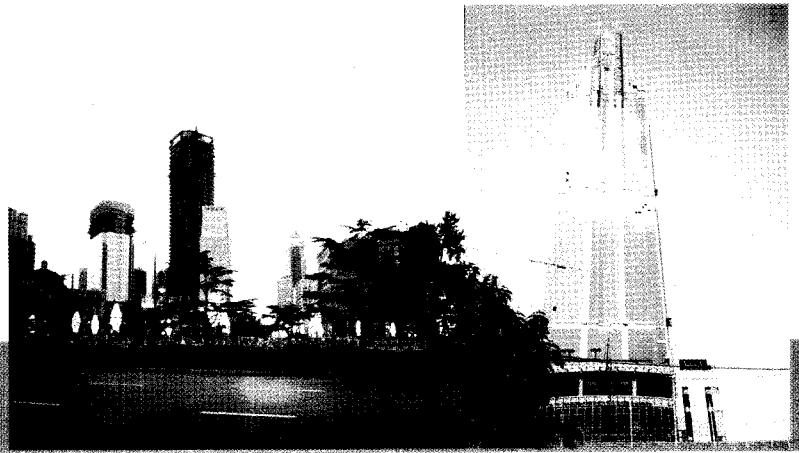


요즘 중국은 전 국토에 망치소리가 한창입니다. 국토개발의 열기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작년에 인구 2400만의 대도시 상해시는 무려 20만개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2005년 이후 중국은 국민 총생산 세계 1위의 국가로 올라선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겁이 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성공적인 모델로 꼽히는 대련시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 모델로 꼽고 있는 도시가 대련시입니다.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인구 1억 3천만 명의 관문 도시이자 항구도시인 대련. 상해 다음으로 물동량 2위의 거대 항구도시 대련. 대련시가에서 중심인 중산광장 주변을 걸어보면 이곳이 유럽이지, 중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불과 한시간 거리인 대련 21세기는 국가 대 국가간의 경쟁력의 시대가 아니라 도시 대 도시간의 경쟁력의 시대를 예고하고

◀ 대련시는 중국에서 개혁과 개방이 가장 잘된 성공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있습니다.

어느 도시가 얼마만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가 하는 싸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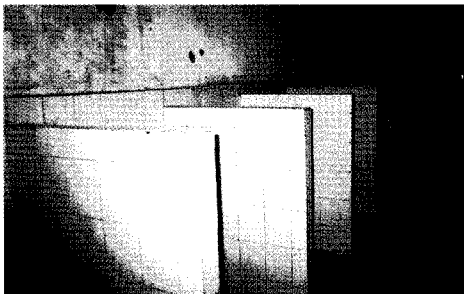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에 이런 첨단도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며, 또한 한국이나 경기도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영금(李永金) 대련 시장(市長)을 만났습니다. 이영금 시장은 한국의 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을 대련의 경제 특별구에 조치하기 위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 그는 8월 하순에 한국에서 벤처기업을 상대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 중산광장의 세계무역센터 빌딩

바로 이 대련시의 한복판인 중산광장 주변에 무려 55층짜리 <세계무역센터>라는 빌딩이 신축되고 있었습니다.

11월 하순 완공될 이 빌딩의 건축주는 뜻밖에도



▲ 55층 신축공사현장의 임시화장실

조선족 김덕주(49)씨였습니다.

양지창 이북에서 가장 높다는 이 빌딩의 공장 현장에서 그는 운동화를 신은 채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55층 신축공사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미국인이 설계하고, 한국의 첨단기업들과 일본, 중국의 기업들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이 설계한 이 빌딩은 인터넷은 물론 화상 전화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정률은 95%에 이르렀고 마지막 공사가 한창인 이 빌딩의 신축공사 현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대한 빌딩을 짓는 신축공사 현장의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공사인부들이 이용하고 있을 신축공사 현장 화장실, 그 화장실은 현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말 그 화장실은 비록 임시였지만 공중변소처럼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으로 공사현장에서 퍼낸 지하수를 24시간 쏟아내듯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다보면 때로 가장 절망적인 것이 화장실 문제인데, 비록 공사현장 화장실이었지만, 화장실문제만큼은 깨끗하게 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 홍 하 상

다큐멘터리 작가, 화장실문화협의회 창립회원  
MBC다큐멘터리 270여편, MBC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서: '일본 뒷골목 엿보기', '프랑스 뒷골목 엿보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등